

2025년 1월 8일 대전세종충남 2025-1-3호

# 보도자료

이 자료는 1월 10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1월 9일 15: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 제 목 : 충청남도 인구구조와 금융포용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본부장 김인구)는 1월 9일 조사연구보고서  
「충청남도 인구구조와 금융포용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작성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문의처: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기획금융팀 이승엽 과장, 박서희 조사역, 허인지 조사역  
Tel : (042)601-1216, 1230, 1217 Fax : 601-1224 E-mail: [bokdaejeonpfr@bok.or.kr](mailto:bokdaejeonpfr@bok.or.kr)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 > 지역본부 > 대전세종충남본부)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붙임)

# 충청남도 인구구조와 금융포용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2025. 1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작성자> 기획금융팀 과장 이승엽, 조사역 박서희·허인지

<조언자> 기획금융팀장 장승연

# 차 례

##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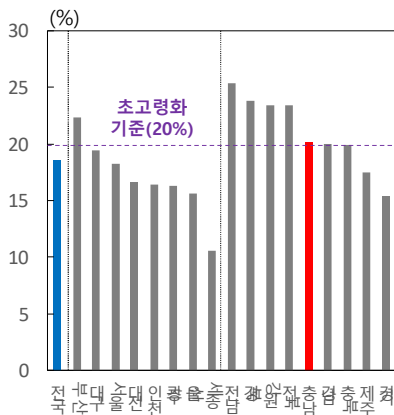
<b>I. 검토 배경</b>	<b>1</b>
<b>II. 충청남도 인구구조 특징</b>	<b>2</b>
1. 개 관	2
2. 높은 고령화율	3
3. 인구 순유입	5
4. 높은 외국인 비중	6
<b>III. 충청남도 금융포용지수 산출 결과</b>	<b>8</b>
1. 금융포용 개념과 지수	8
2. K-금융포용지수 산출 결과	10
<b>IV. 충청남도 금융포용 특징</b>	<b>17</b>
1. 낮은 금융포용 수준	17
2. 도내 권역 간 금융포용의 큰 격차	18
3. 비은행 금융기관 위주의 작은 금융 규모	20
4. 금융 취약계층 대상 금융·경제 교육 부족	22
<b>V. 인구구조 특징을 고려한 정책적 시사점</b>	<b>24</b>
1. 기존 금융 인프라를 활용한 금융 접근성 개선	24
2. 정부 정책과 연계한 금융 접근성 개선	25
3. 금융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정책 수행	26

## 요 약

1 [충청남도 인구구조 특징] 충청남도는 지리적·경제적 특성에 따라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나뉘며, 두 권역은 인구구조와 경제활동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북부권은 도시 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남부권은 농업 중심 지역으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다.

- 2023년 말 충청남도의 고령화율은 20.1%로 전국 평균(18.6%)을 상회하며, 초고령 기준(20%)을 넘어섰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에서는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산업단지가 위치한 북부권의 고령화율은 14.6%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농어촌 지역인 남부권의 고령화율은 30.0%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도내 권역 간 편차가 크다.
- 최근 5년간 충청남도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세종시에 이어 순유입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다. 충청남도로 유입되는 인구를 광역 시·도별로 보면,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순유입되었다.
- 한편, 2023년 말 충청남도 외국인 비중은 5.7%로 전국 평균(3.7%)을 크게 상회하며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충청남도 외국인 인구는 12.7만명으로 광역 시·도 중 세 번째로 많고, 도 지역에서는 경기도(65.3만명)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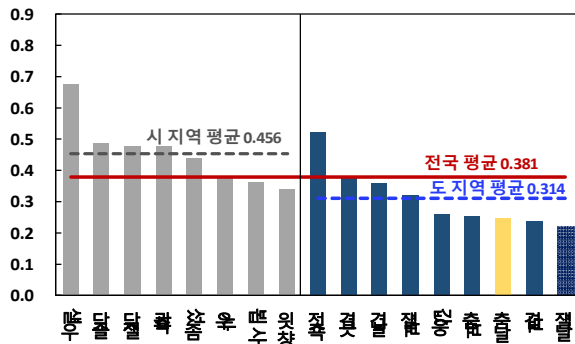
**고령화율<sup>1)</sup>**



2 [충청남도 금융포용지수 산출 결과] 2023년 충청남도의 금융포용지수는 0.246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중하위권(15위)이며, 도 지역 중에서는 중위권 수준이다. 세부 지수별로는 금융기관 접근성 지수가 도 지역 평균을 소폭 상회한 반면, 금융기관 여수신 및 신용활동인구 지수는 도 지역 평균을 하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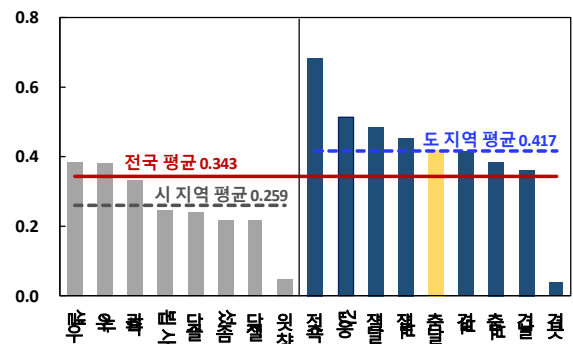
- 충청남도의 금융기관 접근성 지수는 0.419로 도 지역 평균(0.417)을 소폭 상회하면서 도 지역 중위권으로 나타났다. 구성항목별로는 은행·비은행 점포 접근성은 낮은 수준이나 ATM 접근성 및 디지털뱅킹 이용률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포용지수<sup>1)</sup>



주: 1) 2023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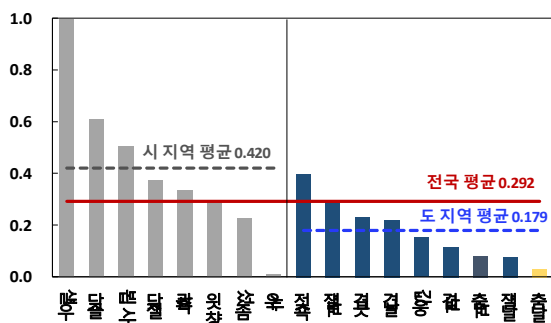
금융기관 접근성 지수<sup>1)</sup>



주: 1) 2023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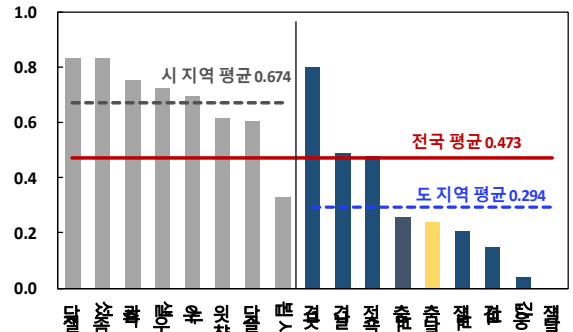
- 충청남도의 금융기관 여수신 지수는 0.032로 전국 평균(0.292) 및 도 지역 평균(0.179)을 모두 하회하면서 전국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구성항목별로는 여신 지수와 수신 지수 모두 도 지역 평균을 크게 하회하며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편, 충청남도의 신용활동인구 지수는 0.236으로 도 지역(0.294) 평균을 하회하면서 도 지역 가운데 중위권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여수신지수<sup>1)</sup>



주: 1) 2023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신용활동인구 지수<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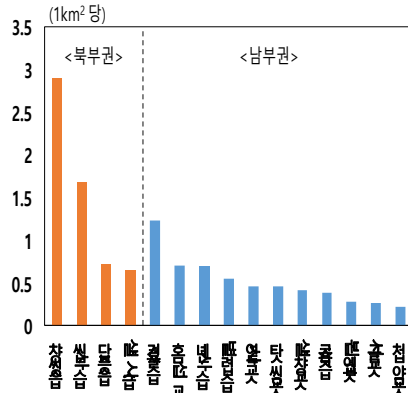


주: 1) 2023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

**③ [충청남도 금융포용 특징]** 충청남도는 금융포용 수준이 전국 중하위권으로 평가되며, 특히 남부권이 북부권에 비해 열악하다. 또한 경제 규모 대비 금융 규모가 작고, 고령층·외국인 대상 금융·경제 교육도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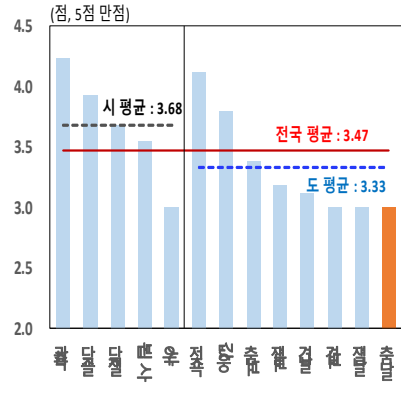
- 충청남도는 금융포용지수가 전국 중하위 수준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도내 권역별 금융 접근성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특히, 남부권을 중심으로 은행 점포와 ATM 등 금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2024년도 금융기관의 지역채투자 평가 결과”에 따르면, 충청남도 금융기관의 도내 자금공급, 대출 등 금융서비스 제공 수준은 타 지역 대비 낮은 수준이다. 한편, 충청남도는 경제 규모(GDP)에 비해 금융 규모(여수신)가 매우 작으며, 여수신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타 광역 시·도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충남 시·군별 면적당<sup>1)</sup> 점포수 및 ATM수<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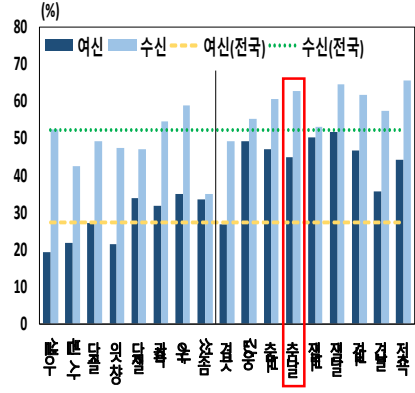
주: 1) 1km<sup>2</sup>당 2) 2023년 말 기준  
자료: 금융결제원 금융MAP

**2024년도 금융기관<sup>1)</sup> 지역채투자 평가<sup>2)</sup> 결과**



주: 1) 은행 15개, 저축은행 12개 기준  
2) 수도권 제외 13개 시·도  
자료: 금융위원회

**비은행 금융기관 여수신 비중<sup>1)2)</sup>**



주: 1) 비은행 ÷ (은행 + 비은행)  
2) 2023년 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 충청남도의 금융포용지수에 더해 금융·경제 교육 운영 현황을 추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충청남도의 금융포용 수준을 입체적으로 평가해 보았다. 2023년 충청남도의 금융·경제 교육 이수자는 인구 1만명당 60.8명 수준이고, 이 중 취약계층인 고령층은 1만명당 1.2명, 다문화가정은 1만명당 0.2명으로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2023년도 충청남도 금융·경제 교육 현황<sup>1)</sup>**

(명/만명, %)

	교육 인원		청소년 <sup>2)</sup>		성인 <sup>3)</sup>		고령층		다문화가정	
충청남도	60.8	(100.0)	42.0	(69.1)	17.3	(28.5)	1.2	(2.1)	0.2	(0.3)
북부권	52.4	(100.0)	34.5	(65.9)	15.6	(29.8)	2.0	(3.7)	0.3	(0.6)
남부권	75.9	(100.0)	55.5	(73.1)	20.4	(26.9)	—	(—)	—	(—)

주: 1) ( )내는 교육 이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2) 다문화 제외 3) 고령층, 다문화 제외  
자료: 충남경제교육센터

**4 [정책적 시사점] 충청남도의 금융포용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인구구조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 **(기존 금융 인프라 활용)** 충청남도의 금융포용 수준 향상을 위해 남부권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금융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대와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층과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금고은행 선정 시 금융포용 관점을 반영하여 지역 금융 네트워크와 서비스 강화를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정부 정책과 연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충청남도 남부권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활 SOC 시설에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촌 중심지에는 공동 금융서비스 센터를 설립하며, 이동식 금융 차량을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대출 지원, 저금리 상품, 정부 보증 확대 등을 통해 통합적 금융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맞춤형 금융상품)** 금융 취약계층인 농촌 고령층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상품을 확대해야 한다. 농촌 고령층은 소득과 경제적 자립도가 낮고 건강과 노후 자금 부담이 커 생활비와 의료비를 위한 저금리 소액 대출 상품과 연금형 금융상품이 필요하다. 외국인은 가족 동반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주택자금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 같은 특화 금융상품을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
- **(맞춤형 금융·경제 교육)** 고령층 대상 교육은 금융 사기 예방, 기초 금융 이해, 연금 및 디지털 금융 적응 등 실생활에 기반한 주제로 구성해야 하며, 소규모 워크숍, 현장 실습, 온라인 학습을 병행해 실질적 학습 효과를 높여야 한다. 외국인 대상 교육은 다국어 자료를 활용해 한국 금융시스템 이해, 국제 송금, 자녀 경제교육 등 한국 생활 적응에 필요한 내용을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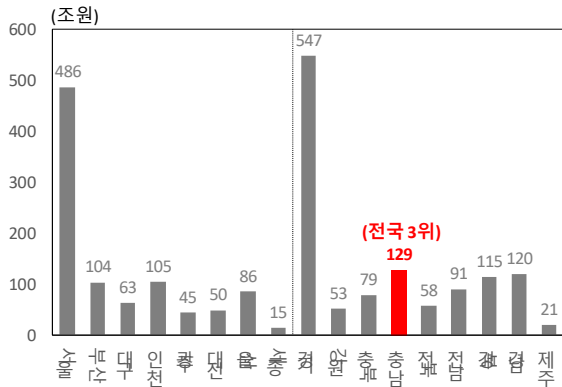
I

검토 배경

1. 충청남도는 대한민국의 주요 지역경제 중심지(수도권 제외 지역내총생산 1위)로서, 고령층과 외국인 비중이 높은 인구구조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인구구조는 지역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금융포용 수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은 개인과 기업이 금융서비스에 접근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지역 경제의 포괄적 성장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금융포용은 단순히 금융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서비스의 적정성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모든 계층과 지역에 걸친 평등한 접근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다. 선행연구<sup>1)</sup>에서 충청남도의 금융포용 수준은 여타 지역 대비 낮은 지표를 보이고 있다.
3.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인구구조와 금융포용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금융포용에 있어 지역적 제약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충청남도는 지리적·경제적 특성에 따라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구분되며, 두 권역 간에 뚜렷한 사회·경제적 격차가 존재한다. 권역별 차이는 충청남도의 금융포용 수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금융 인프라와 서비스의 불균형적 분배로 이어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포용지수를 활용하여 충청남도의 금융포용 현황과 과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충청남도는 주요 지역경제 중심지 중 하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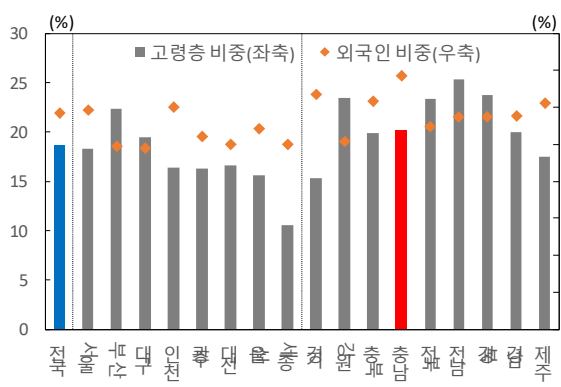
[그림 1] 광역 시·도별 지역내총생산<sup>1)</sup>(GRDP)



주: 1) 2022년 기준  
자료: 통계청

충청남도는 고령층과 외국인 비중이 높은 편

[그림 2] 광역 시·도별 고령층 및 외국인 비중<sup>1)2)</sup>



주: 1) 2023년 말 기준  
자료: 통계청

1) 정희완 외(2023), "강원지역 금융포용의 특징 및 평가", 한국은행 강원·강릉본부



## II 충청남도 인구구조 특징

### KEY TAKEAWAY

- ① 지리적, 경제적 특성 등을 바탕으로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구분 가능하며, 북부권은 인구가 유입되는 반면, 남부권은 인구가 유출
- ② 고령화율은 20.1%로 전국 평균(18.6%)을 상회, 고령화 속도는 전국 평균을 하회
- ③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가운데 순유입 인구가 두 번째로 많으나, 북부권으로 인구유입이 집중되며 도내 권역 간 편차가 심화
- ④ 외국인 비중은 5.7%로 전국 광역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외국인 증가율도 여타 지역 대비 높은 수준

## 1 개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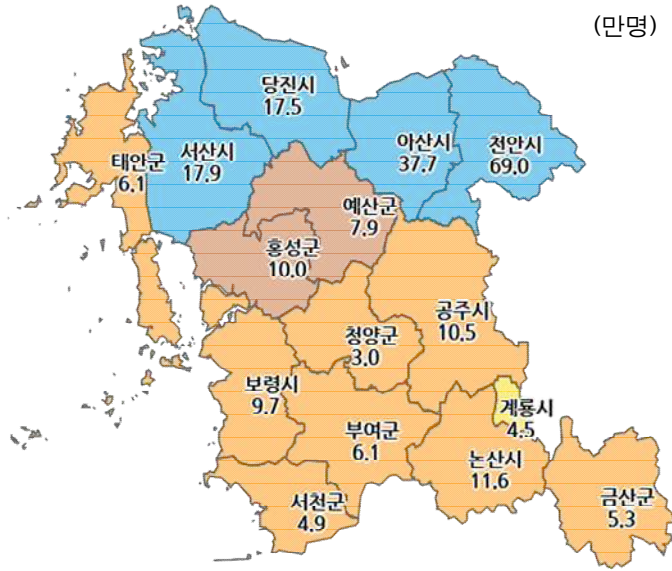
### 【충청남도 북부권은 인구가 유입되는 반면, 남부권은 인구가 유출】

- 4. 충청남도는 지리적, 경제적 특성 등을 바탕으로 크게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부권은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남부권은 농업 중심 지역으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 5. 북부권(천안, 아산, 서산, 당진)은 충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권역이며, 특히 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천안과 아산은 좋은 일자리<sup>2)</sup>가 많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청년세대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아산시는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청년인구가 증가<sup>3)</sup>하고 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쾌적한 주거 환경,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 6. 반면, 남부권(공주, 보령,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은 수도권 접근성이 낮고 대부분 농·어촌 지역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다. 다만, 내포권(홍성군, 예산군)은 충남도청이 위치한 행정 중심지로 일정 수준의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계룡시는 계룡대 등 주요 군사시설이 있어 군 관련 젊은 인구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남부권 11개 시·군 가운데 위 홍성군과 계룡시를 제외한 9개 시·군은 모두 정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sup>4)</sup>에 해당<sup>5)</sup>할 정도로 인구가 순유출되고 있다.

2)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코닝정밀소재,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CC 등  
 3) 아산시의 청년인구는 2021.1월 91,304명에서 2024.1월 95,727명으로 4,423명(4.84%) 증가하였다(통계청).  
 4) 2021.10월 전국 89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5년 주기로 재지정)되었으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5) 예산군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이루어진 2021년도 이후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면서 현재에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충청남도는 도시지역인 북부권에 인구의 64.1%가 집중

[그림 3] 충청남도 시·군 인구 현황<sup>1)2)</sup>



[표 1] 충청남도 시·군 인구 밀도<sup>3)</sup>

	(만명, km <sup>2</sup> , 명/km <sup>2</sup> )			
	인구(A)	면적(B)	밀도(A/B)	
<b>충청남도</b>	<b>221.6</b>	<b>(100.0)</b>	<b>8,248</b>	<b>268.8</b>
<b>북부권</b>	<b>142.0</b>	<b>(64.1)</b>	<b>2,627</b>	<b>540.6</b>
천안시	69.0	(31.1)	636	1,084.4
아산시	37.7	(17)	543	693.9
서산시	17.9	(8.1)	742	240.6
당진시	17.5	(7.9)	706	247.9
<b>남부권</b>	<b>79.6</b>	<b>(35.9)</b>	<b>5,621</b>	<b>141.7</b>
논산시*	11.6	(5.2)	556	208.4
공주시*	10.5	(4.8)	864	122.1
홍성군	10.0	(4.5)	447	223.9
보령시*	9.7	(4.4)	587	165.1
예산군*	7.9	(3.6)	543	146.0
부여군*	6.1	(2.8)	625	97.6
태안군*	6.1	(2.7)	516	117.3
금산군*	5.3	(2.4)	577	92.0
서천군*	4.9	(2.2)	366	134.6
계룡시	4.5	(2.0)	61	738.5
청양군*	3.0	(1.4)	479	62.5

주: 1) 2023년 말 기준    2) 북부권( [색상] ), 남부권( [내포] , [계룡] )    3) \* 는 인구감소지역  
 자료: 행정안전부, 통계청

**2**    **높은 고령화율**

**[고령화율이 높지만, 고령화 속도는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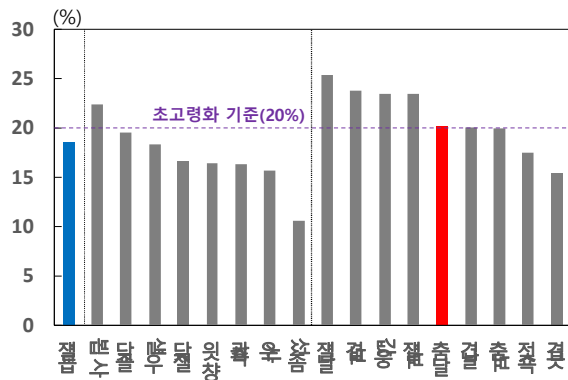
7. 2023년 말 충청남도의 고령화율<sup>6)</sup>은 20.1%로 전국 평균(18.6%)은 물론 초고령 기준<sup>7)</sup>(20%)을 상회하며,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에서는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산업단지가 위치한 북부권은 고령화율(14.6%)이 낮은 반면, 농어촌 지역인 남부권은 고령화율(30.0%)이 높게 나타나는 등 도내 권역별 편차가 크다.

6)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  
 7) 국제연합(UN)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충청남도 고령화율은 전국 광역 시·도 중 6위**

**남부권 고령화율은 북부권의 2배 수준**

[그림 4] 광역 시·도별 고령화율<sup>1)2)</sup>



주: 1) 2023년 말 기준  
2) 65세 이상 인구 기준  
자료: 통계청

[표 2] 우리나라 고령화율<sup>1)2)</sup>

	(만명, %)		
	인구	고령인구	고령화율
전국	5,177.5	960.9	18.6
시 지역	2,249.0	410.2	18.2
도 지역	2,928.4	550.7	18.8
충청남도	221.6	44.6	20.1
북부권	142.0	20.7	14.6
남부권	79.6	23.9	30.0

주: 1) 2023년 말 기준  
2) 65세 이상 인구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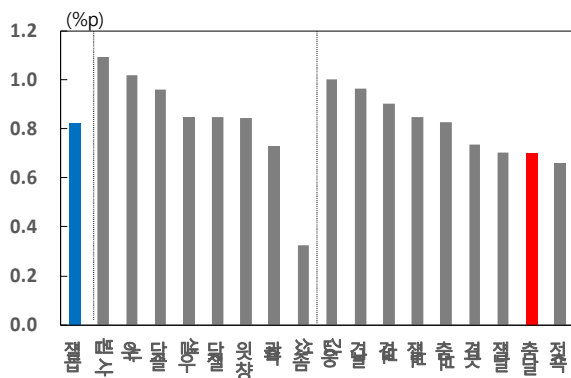
8. 한편, 최근 5년간 충청남도의 고령화 속도<sup>8)</sup>는 0.70으로 전국 평균(0.82)을 하회하며,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그동안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구가 유입된 세종시(1위), 제주도(2위) 등을 제외하면 고령화 속도는 사실상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

9. 그러나, 충청남도 권역별로는 남부권과 북부권의 고령화 속도가 크게 차이(약 2배) 나는데, 이는 양 권역 간 고령화율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반영한다. 고령화율이 높은 남부권은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젊은 층 인구가 유입되는 북부권은 고령화 속도가 낮은 상황이다.

**충청남도 고령화 속도는 낮은 수준**

**남부권 고령화 속도는 북부권의 2배 수준**

[그림 5] 광역 시·도별 고령화 속도<sup>1)</sup>



주: 1) (23년 고령화율 - 18년 고령화율) ÷ 5년  
자료: 통계청

[표 3] 충청남도 권역별 고령화 속도<sup>1)</sup>

	고령화율		고령화 속도
	2018년	2023년	
전국	14.4	18.6	0.82
시 지역	13.8	18.2	0.88
도 지역	14.9	18.8	0.78
충청남도	16.6	20.1	0.70
북부권	11.7	14.6	0.58
남부권	24.9	30.0	1.04

주: 1) (23년 고령화율 - 18년 고령화율) ÷ 5년  
자료: 통계청

8) (23년 고령화율 - 18년 고령화율) ÷ 5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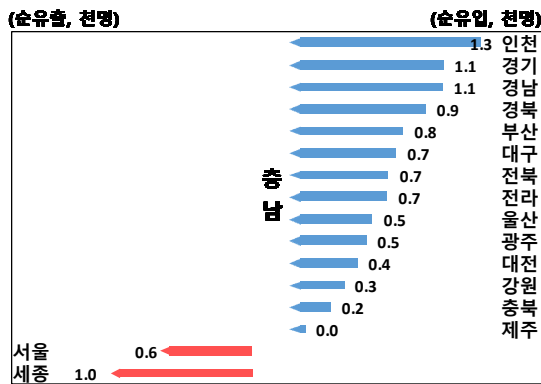
인구 순유입

**[인구가 순유입되는 가운데 권역(북부 순유입·남부 순유출) 간 인구 편차는 심화]**

10. 최근 5년간 충청남도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순유입 인구가 두 번째<sup>9)</sup>로 많은 지역이다. 충청남도로 유입되는 인구를 시도별로 보면, 광역 시·도 가운데 단 2개 시(서울, 세종)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순유입되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학업, 취업 등의 목적으로 순유출되었으나 30~60대 생산연령인구<sup>10)</sup>는 직업, 주택 등의 목적으로 큰 폭 순유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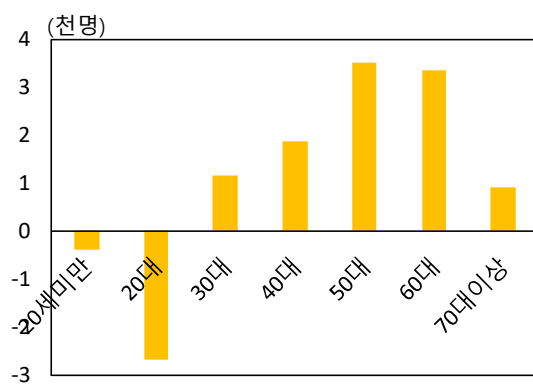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충청남도로 인구가 순유입 30~60대 생산연령인구 순유입이 다수

[그림 6] 광역 시·도별 충청남도 순유입 인구<sup>1)</sup>



주: 1) 2019~2023년 평균  
자료: 통계청

[그림 7] 연령대별 충청남도 순유입 인구<sup>1)</sup>



주: 1) 2019~2023년 평균  
자료: 통계청

11. 그러나 충청남도로 유입되는 인구의 대부분은 아산·천안을 중심으로 한 북부 권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남부권은 대체로 인구가 순유출되면서 도내 권역 간 인구 편차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충청남도 내의 인구가동을 보면, 남부권은 생산연령인구를 중심으로 인구가 북부권으로 순유출되면서 고령화 및 지방소멸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시·군별로는, 북부권은 아산시가 좋은 일자리와 쾌적한 주거 환경 등으로, 남부권은 계룡시·예산군이 공동주택단지 개발 등으로 인근 지역으로부터 전입이 증가하며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다.

9) 1위는 세종시로 대전시로부터의 순유입 인구 규모가 크다.

10) 만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로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를 의미한다.

권역별로는 북부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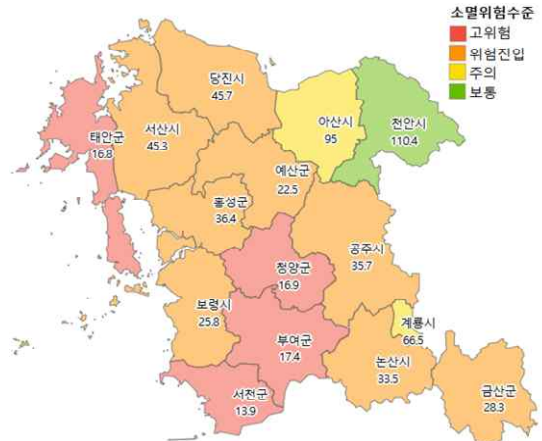
남부권은 지방소멸 현상이 심화

[표 4] 충청남도 권역별 순유입 인구<sup>1)</sup>

(천명)					
전입	전출	전국	충청남도	북부권	남부권
충청남도		+7.7	—	-1.5	+1.5
북부권		+9.1	+1.5	—	+1.5
천안시		+1.1	-2.2	-2.8	+0.6
아산시		+6.5	+3.8	+3.3	+0.5
서산시		+0.6	-0.0	-0.3	+0.3
당진시		+0.9	-0.2	-0.2	+0.1
남부권		-1.3	-1.5	-1.5	—
예산군		+0.5	+0.2	-0.2	+0.4
계룡시		+0.6	+0.1	-0.0	+0.2

주: 1) 2019~2023년 평균  
자료: 통계청

[그림 8] 충청남도 시·군별 지방소멸지수<sup>1)2)</sup>



주: 1) 2023년 말 기준  
2) 20~39세 여성인구 ÷ 65세이상 인구 기준  
자료: 통계청

## 4 높은 외국인 비중

### [전국에서 외국인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남부권 외국인 증가율이 높음]

12. 충청남도 외국인 비중(5.7%)은 전국 평균(3.7%)을 크게 상회하며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충청남도 외국인 인구(12.7만명)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세 번째로 많으며, 도 지역 가운데에서는 외국인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65.3만명) 다음으로 많다.

#### 충청남도 외국인 비중은 전국 최고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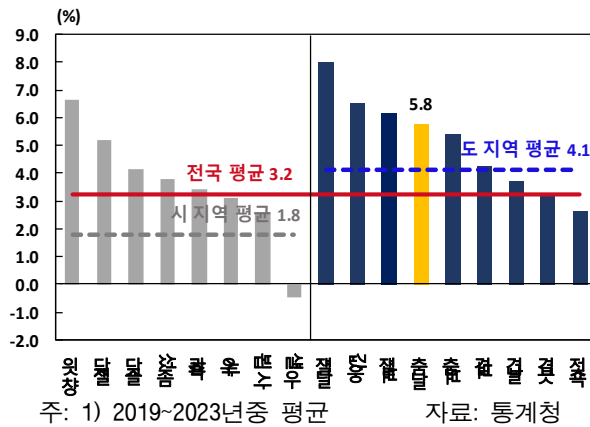
[표 5] 광역 시·도별 외국인<sup>1)</sup> 현황<sup>2)</sup>

				(만명, %)			
	인구 (A)	외국인 (B)	비중 (B/A)	인구 (A)	외국인 (B)	비중 (B/A)	
전국	5,177.5	193.5	(3.7)	2,928.3	123.6	(4.2)	도 지역
시 지역	2,249.0	69.8	(3.1)	충남	221.6	12.7	(5.7)
인천	302.6	12.2	(4.0)	경기	1,381.5	65.3	(4.7)
서울	938.5	36.6	(3.9)	충북	164.1	7.1	(4.3)
울산	110.7	3.2	(2.9)	제주	67.7	2.9	(4.3)
광주	145.7	3.5	(2.4)	경남	327.1	11.7	(3.6)
세종	38.6	0.8	(2.0)	경북	259.0	9.1	(3.5)
대전	147.0	2.9	(2.0)	전남	177.7	6.2	(3.5)
부산	328.0	6.3	(1.9)	전북	176.8	5.3	(3.0)
대구	237.9	4.3	(1.8)	강원	152.8	3.3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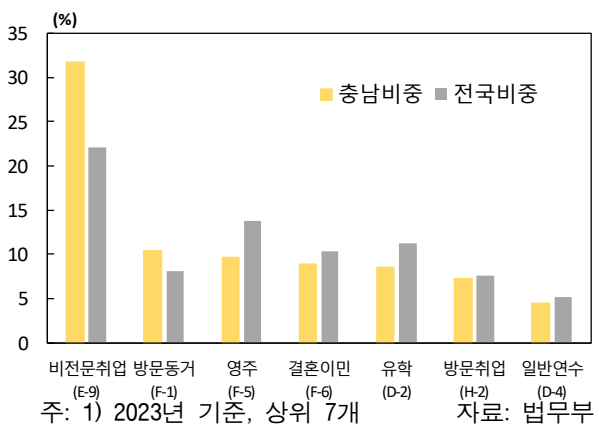
주: 1)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2) 2023년 말 기준 자료: 통계청

**13. 충청남도도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5.8%)도 여타 지역(전국, +3.2%)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한편, 체류자격<sup>11)</sup>별 충청남도 외국인은 비전문취업(E-9) 31.7%, 방문동거(F-1) 10.4%, 영주(F-5) 9.6%, 결혼이민(F-6) 8.9% 등의 순이며, 전국 평균 대비 비전문취업(외국인 근로자) 및 방문동거(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충청남도 외국인 증가율도 전국 평균을 상회**  
[그림 9] 광역 시·도별 외국인 증가율<sup>1)</sup>



**비전문취업(외국인 근로자) 및 방문동거(가족)가 다수**  
[그림 10] 충남 체류자격별 외국인 비중<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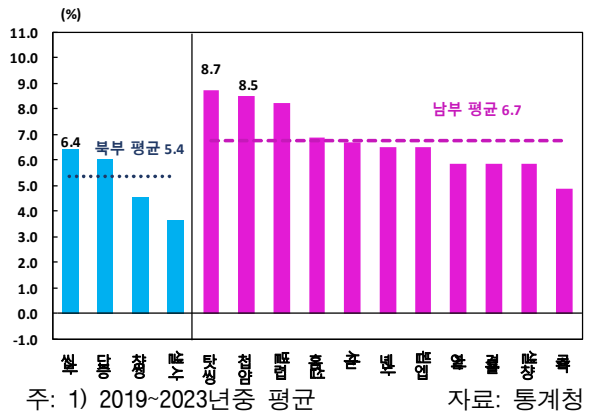
**14. 충청남도 외국인 비중은 권역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만, 권역별 외국인 인구는 북부권에 약 70%가 집중되어 있는 등 권역별 외국인 인구 편차는 크게 나타난다. 한편, 최근에는 남부권의 외국인 증가율이 북부권의 외국인 증가율을 상회하는 모습이다. 이는 농·어촌 지역(남부권)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내국인이 유출되면서 부족해진 생산연령인구에 대응하여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sup>12)</sup>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유치한 데 기인한다.

**외국인 비중은 권역별 차이가 적음**  
[표 6] 충청남도 시·군별 외국인 비중<sup>1)</sup>

	(만명, %)	
	외국인 인구	외국인 비중
<b>충청남도</b>	<b>12.7</b>	<b>5.7</b>
<b>북부권</b>	<b>8.9</b>	<b>6.3</b>
아산시	3.5	9.3
당진시	1.1	6.1
천안시	3.6	5.2
<b>남부권</b>	<b>3.8</b>	<b>4.8</b>
금산군	0.4	7.4
논산시	0.8	6.5
보령시	0.6	5.7

주: 1) 2023년 말 기준      자료: 통계청

**남부권 외국인 증가율이 북부권을 상회**  
[그림 11] 충청남도 시·군별 외국인 증가율<sup>1)</sup>



11) 우리나라 외국인 체류자격 현황은 <참고 1> ‘외국인 체류자격’ 를 참조하기 바란다.  
12) 지자체 또는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1개월 미만 단기로 인력을 공급하고, 농가에는 이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동 제도는 202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매년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계절근로자는 5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 Ⅲ

## 충청남도 금융포용지수 산출 결과

### KEY TAKEAWAY

- ①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금융포용지수를 설계하여 충청남도의 금융포용 현황을 분석
- ② 충청남도 금융포용지수는 전국 중하위권, 도 지역 중위권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지수별로는 금융기관 접근성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나 금융기관 여수신, 신용활동인구는 전국 평균을 하회

### 1

## 금융포용 개념과 지수

**【금융포용은 금융서비스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금융포용지수는 이를 비교·분석하는 지표로 활용】**

15.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은 모든 개인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에 공정하고 적절하게 접근하고, 이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금융포용은 특히 저소득층, 농촌 지역 주민, 여성, 중소기업 등 금융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이 은행 계좌, 대출, 보험, 송금, 디지털 금융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융포용을 높이는 것은 빈곤 완화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위해 정부, 민간 기업,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16. 금융포용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함에 있어 구체적인 지표로 활용되는 것이 **금융포용지수<sup>13)</sup>(Financial Inclusion Index)**이다. 금융포용지수는 금융서비스가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개인에게 얼마나 포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다양한 금융포용지수 가운데 경제학자 Mandira Sarma가 제안한 Sarma Index of Financial Inclusion(이하 'Sarma 금융포용지수')가 국가 및 지역 간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널리 활용<sup>14)</sup>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도 동 지수를 활용하여 충청남도의 금융포용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13) 전 세계의 주요 금융포용지수는 <참고 2> '금융포용지수 현황' 을 참조하기 바란다.

14) 세계은행(World Bank) 및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금융포용 관련 보고서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17. Sarma 금융포용지수<sup>15)</sup>는 금융포용의 다양한 요소를 하나의 지수로 표현하여 지역 간 비교와 포괄적 금융포용 분석에 유용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기관 접근성, 여수신 규모, 은행 계좌수 등 세 가지 세부 지수로 구성되며, 항목별 측정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하여 최종 금융포용지수를 산출한다. 지수는 0부터 1까지의 값으로 표현되며, 1에 가까울수록 금융포용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만, 동 지수는 국가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지표와 정성적 평가가 보완될 때 한층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18. 본 보고서에서는 Sarma 금융포용지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금융 특성에 맞는 새로운 금융포용지수(K-금융포용지수)를 설계하여 충청남도의 금융포용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Sarma 지수에서 유용성이 낮은 ‘은행 계좌수’를 제외<sup>16)</sup>하고, 대신 데이터 가용성 등을 감안하여 전체 인구 대비 ‘신용활동인구<sup>17)</sup> 비중’을 활용하고자 한다. 한편, 지역 금융기관 이용 행태 등을 반영하여 비은행<sup>18)</sup> 점포수를 추가하였으며, 최근 디지털금융 확산 등을 감안하여 디지털뱅킹 사용률도 추가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Sarma 지수를 수정·보완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금융포용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arma의 금융포용지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금융 특성에 맞는 새로운 지수(K-금융포용지수)를 설계

[표 7] Sarma의 금융포용지수와 K-금융포용지수

세부 지수	설 명	Sarma의 금융포용지수		K-금융포용지수	
		측정 지표	지수내 가중치	측정 지표	지수내 가중치
금융기관 접근성	금융 인프라의 분포 수준을 나타내며, 금융서비스의 접근성을 평가	- 인구 10만명당 은행수 - 인구 10만명당 ATM수	2/3 1/3	- 성인 1만명당 은행 및 비은행 점포수 - 성인 1만명당 ATM수 - 디지털뱅킹 이용률	2/4 1/4 1/4
여수신 규모	금융서비스의 사용률을 나타내며, 경제 내 금융 시스템의 활용도를 평가	- GDP 대비 민간부문 여수신 총액 비율	단일	- GRDP 대비 민간부문 여수신 총액 비율	단일
은행 계좌수 신용활동 인구	은행 계좌 보유 비율·신용활동 인구 비중을 나타내며, 금융시스템의 침투도를 평가	- 성인 1,000명당 은행 계좌수	단일	- 신용활동인구 비중 (전체 인구 대비)	단일

15) 구체적인 산출 방법은 <참고 3> ‘Sarma의 금융포용지수 산출 방법’ 을 참조하기 바란다.

16) ‘금융기관 계좌수’는 국제 비교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평균 보유 계좌수가 11.7개 (2016년 말)로 사실상 전 국민이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국내 지역별 금융포용 분석 시에는 유용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17) 가계부채DB의 모집단으로서 국내 거주자(내·외국인) 중 신용이력(대출 경력, 신용·체크카드 보유, 채무불이행 등)을 보유한 자를 의미한다.

18)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자산운용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우체국 예금, 새마을금고



2

K-금융포용지수 산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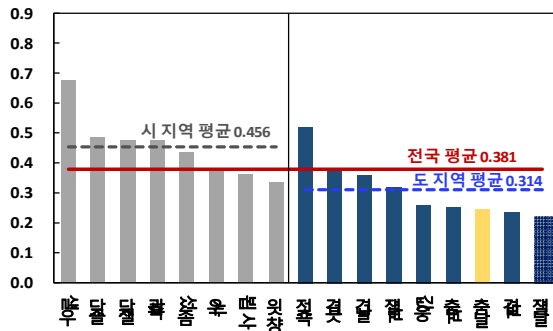
【충청남도의 금융포용지수는 전국 중하위권, 도 지역 중위권】

종합 지수

19. 2023년 기준 충청남도의 금융포용지수는 0.246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중하위권(15위)이며, 도 지역에서는 강원도, 충청북도 등과 함께 중위권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금융포용지수가 낮은 수준에서 소폭 등락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전국 평균과의 격차가 소폭 확대되는 모습이다.

충청남도 금융포용지수는 도 지역 중위권

[그림 12] 광역 시·도별 금융포용지수<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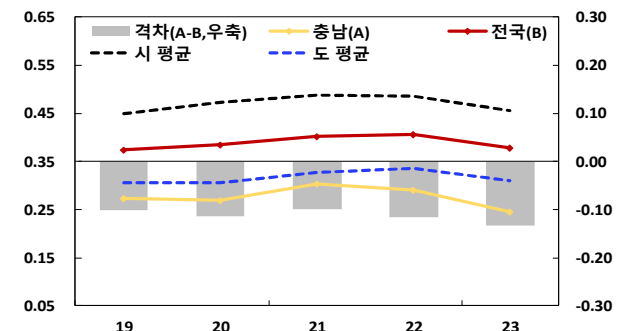


주: 1) 2023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

연도별로는 전국 평균을 하회하며 소폭 등락

[그림 13] 연도별 금융포용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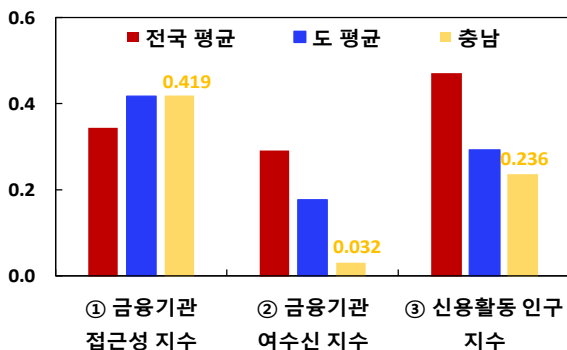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0. 세부 지수(3개)별로는 금융기관 접근성 지수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반면, 금융기관 여수신 및 신용활동인구 지수는 전국 평균 및 도 지역 평균을 하회하였다. 특히, 금융기관 여수신 지수는 도 지역 평균을 대폭 하회하면서 여타 지역과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였다.

세부 지수 가운데 금융기관 접근성만 전국 평균 상회 여수신지수와 신용활동인구 지수는 전국 평균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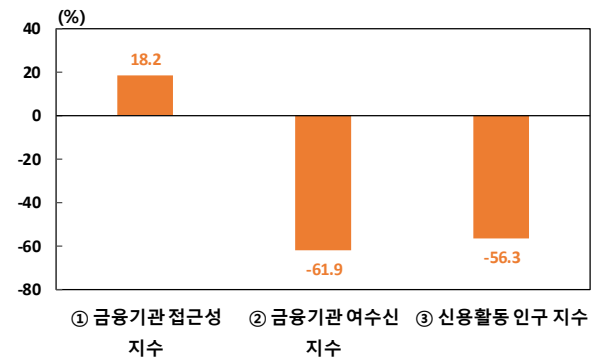
[그림 14] 세부 지수별 측정값<sup>1)</sup>



주: 1) 2023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

[그림 15] 전국 평균과의 격차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 세부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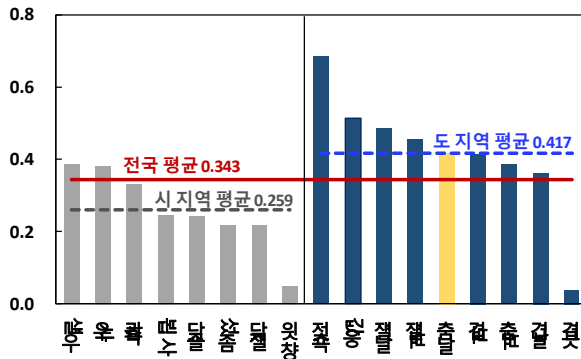
### (① 금융기관 접근성 지수)

21. 2023년 기준 충청남도의 금융기관 접근성 지수는 0.419로 전국 평균(0.343) 및 도 지역 평균(0.417)을 상회하며 도 지역 중위권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접근성 지수는 은행 및 비은행 점포수, ATM수<sup>19)</sup>, 디지털뱅킹 이용률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하였다. 연도별로는 금융기관 영업점포 효율화 추진에 따른 점포 통·폐합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충청남도 접근성 지수는 도 지역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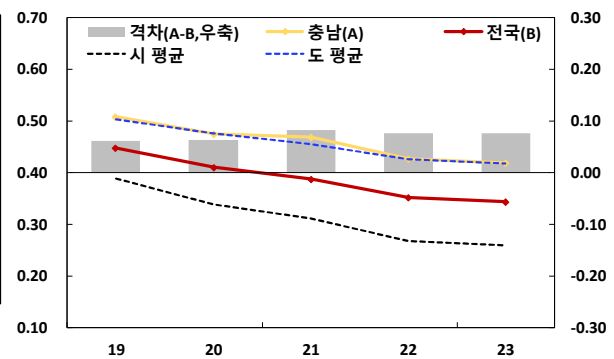
영업점포 효율화 등으로 접근성 지수는 하락 추세

[그림 16] 광역 시·도별 금융기관 접근성 지수<sup>1)</sup>



주: 1) 2023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

[그림 17] 연도별 금융기관 접근성 지수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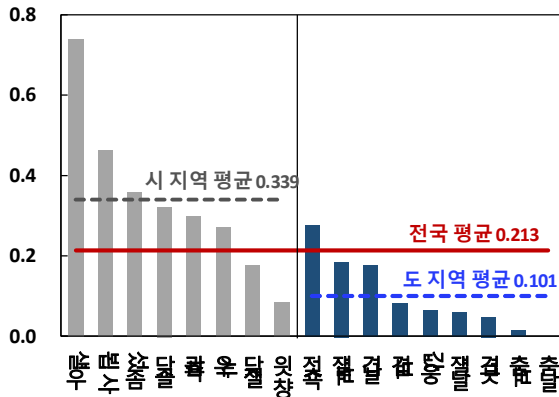
22. 구성항목별로는 은행·비은행 점포 접근성은 낮은 수준이나 ATM 접근성 및 디지털뱅킹 이용률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점포수 지수는 지방은행 부재<sup>20)</sup> 등으로 인해 전국 최하위를 나타내었으며, 비은행 점포수 지수도 낮은 수준이다. 반면, ATM수 지수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디지털뱅킹 이용률 지수도 전국 평균을 소폭 상회하는 등 양호한 모습이다. 이는 충청남도의 금융환경이 전통적 금융기관의 물리적 접근성에서 약점을 보이지만, ATM과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통해 이를 일정 부분 보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금융환경의 디지털화가 금융기관 접근성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19) 2023년 ATM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아, 본 고에서는 2022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하여 산출하였다.

20)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개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충청은행이 하나은행에 합병되었다. 충청권에서는 자금 유출의 방지, 지역 내 재투자, 금융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은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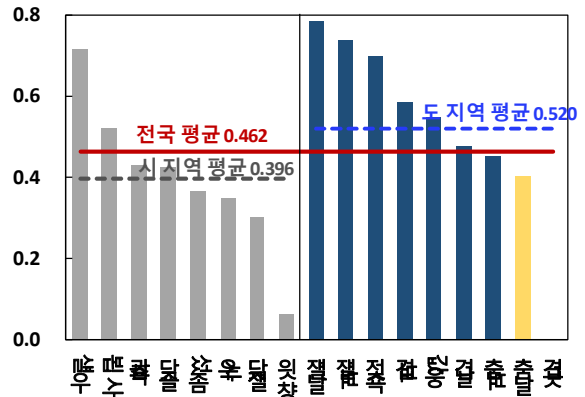
은행·비은행 점포수는 낮은 수준이나 ATM 및 디지털뱅킹 이용률은 양호한 수준

[그림 18] 은행 점포수 지수<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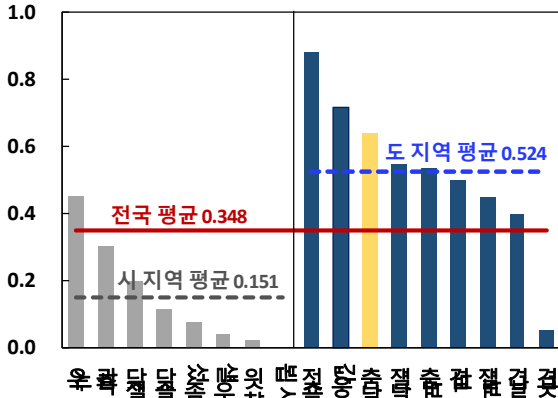
주: 1) 2023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

[그림 19] 비은행 점포수 지수<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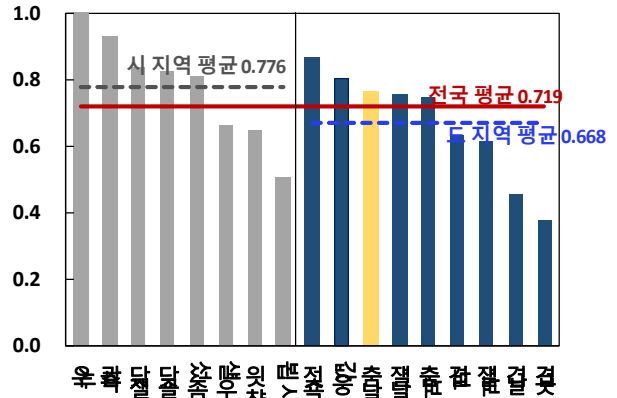
주: 1) 2023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

[그림 20] ATM수 지수<sup>1)</sup>



주: 1) 2023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

[그림 21] 디지털뱅킹 이용률 지수<sup>1)</sup>



주: 1) 2023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

23. 충청남도 금융 취약계층(고령층, 외국인)의 금융기관 접근성 현황을 보다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추가 자료<sup>21)</sup>를 활용하여 살펴본 결과,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물리적 접근성(ATM)보다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에 소재한 ATM의 75.3%가 화면확대 기능<sup>22)</sup>을 제공하며, 인구 1만명당 ATM 수도 86.9개로 전국 평균(75.9개)을 상회하는 등 ATM은 고령층 친화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뱅킹 이용률은 70대 이상에서 23.6%에 그쳐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인해 고령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물리적 인프라와 디지털 금융서비스 간의 균형 잡힌 접근성 개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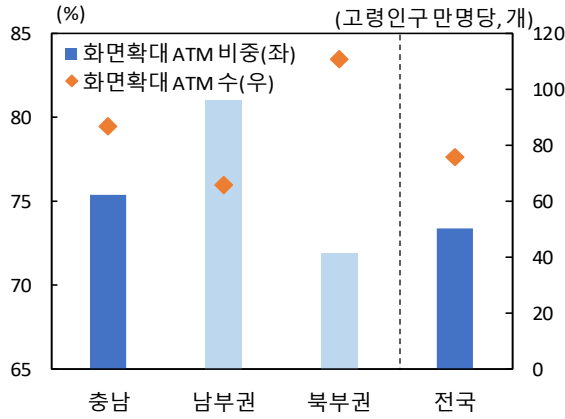
21) ATM은 상기 접근성 지수에서 사용한 통계보다 시계열은 짧으나 시군구 단위, 지원 언어·서비스 등 보유 기능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금융결제원 금융MAP(2021년 서비스 시작)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디지털금융 이용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사회진흥원의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서 인터넷뱅킹 이용 관련 원자료를 시도, 연령대별로 가공하였다.

22) 이외에도 휠체어이용 가능(14.8%), 이어폰(68.2%), 점자(74.8%) 등 고령층뿐만 아니라 장애인 지원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충청남도 ATM은 비교적 고령층 친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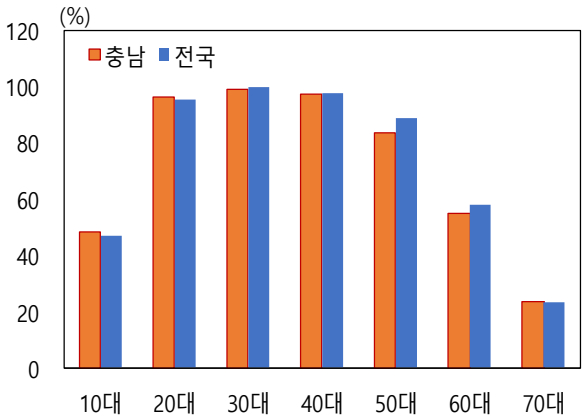
고령층의 낮은 디지털뱅킹 이용률

[그림 22] 화면확대 기능 보유 ATM 비중<sup>1)</sup>



주: 1) 2023년 말 기준  
자료: 금융결제원 금융MAP

[그림 23] 연령별 디지털뱅킹 이용률<sup>1)</sup>



주: 1) 2022년 기준  
자료: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4. 반면, 외국인의 경우 물리적 접근성은 낮지만 디지털 접근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충청남도의 외국인 특화 은행 영업점<sup>23)</sup>은 단 한 곳만 있어 12만명을 초과하는 지역 내 외국인을 수용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상황<sup>24)</sup>이다. 다만, 외국인의 연령대와 학력, 인터넷 이용 실태 등<sup>25)</sup>을 고려했을 때, 이들은 디지털뱅킹을 원활히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sup>26)</sup>된다.

낮은 외국인근로자 특화점포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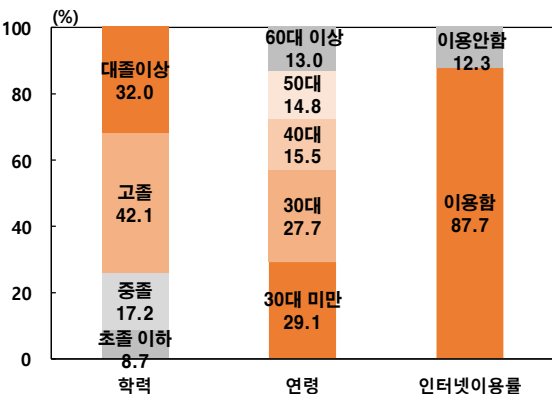
외국인 특성 고려시 원활한 디지털뱅킹 이용 추정

[표 8] 외국인근로자 특화점포 현황<sup>1)</sup>

시·도	점포수	시·도	점포수
서울	7	광주	1
경기	18	충청남도	1
인천	1	경남	3
대구	1	합계	32

주: 1) 2024.10월말 기준  
자료: 은행연합회

[그림 24] 외국인 학력, 연령, 인터넷 이용 실태<sup>1)</sup>



주: 1) 학력·연령은 2023년 기준, 인터넷 이용률은 2022년 기준  
자료: 통계청, 법무부

23) 외국인 특화 은행 영업점은 휴일 영업, 통역서비스 제공 등 외국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24) 실제로 외국인 특화 은행 영업점의 절반을 운영하는 하나은행에 따르면 일요일 영업하는 특화점포에 일평균 300명의 외국인 고객이 몰리고 있다(“외국인 특화은행 내세운 하나은행, 일요일 점포에 일평균 300명 몰려”, 글로벌이코노믹 24.9.25).  
25) 연령 : 15세~59세 87.2%, 학력 : 고졸 이상 74.1%, 인터넷 이용률 : 87.1%  
26)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은 은행 앱 등을 통해 계좌이체, 환전, 해외송금 등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충청남도 외국인 연구자 면담 결과).

## (② 금융기관 여수신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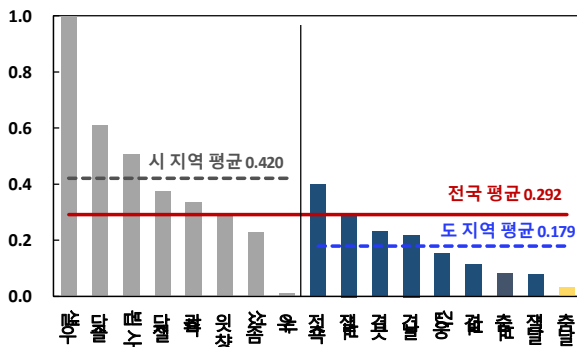
25. 2023년 기준 충청남도의 금융기관 여수신 지수는 0.032로 전국 평균(0.292) 및 도 지역 평균(0.179)을 모두 크게 하회하며 도 지역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매년 여수신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2021년에는 지역내총생산(GRDP)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sup>27)</sup>하면서 지수가 소폭 하락하였다가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과의 격차는 큰 수준이다.

충청남도 여수신지수 전국 최하위권

여수신지수 전국과 큰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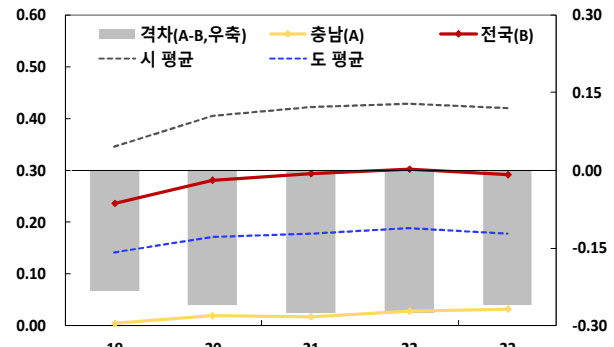
[그림 25] 광역 시·도별 금융기관 여수신 지수<sup>1)</sup>

[그림 26] 연도별 금융기관 여수신 지수 추이



주: 1) 2023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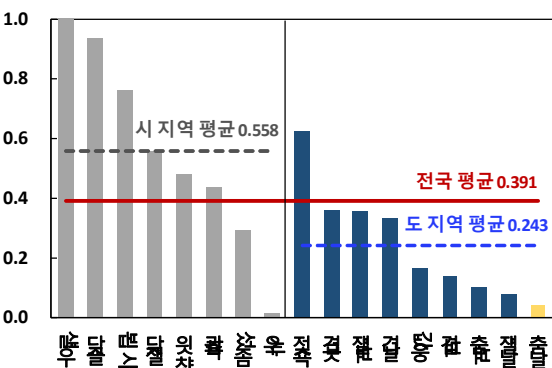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6. 구성항목별로는 여신 지수와 수신 지수 모두 도 지역 평균을 크게 하회하며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충청남도의 금융기관 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지역 내 금융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낮은 여신 지수는 금융기관의 대출 활동이 제한적임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 및 개인의 자금조달 여건이 불리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낮은 수신 지수는 지역 가계·기업의 저축 활동이나 금융기관의 자금 유치 능력이 부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충청남도 여신 지수와 수신 지수 모두 전국 평균을 큰 폭 하회하며 매우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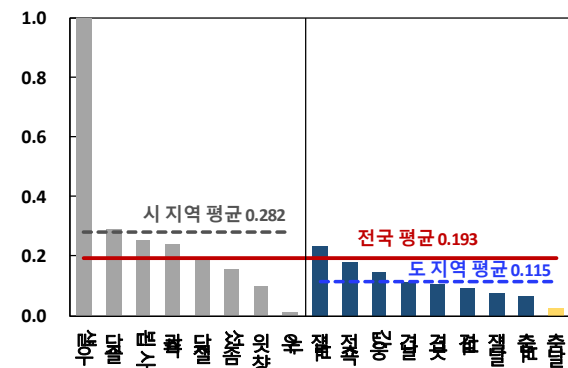
[그림 27] 광역 시·도별 금융기관 여신 지수<sup>1)</sup>

[그림 28] 광역 시·도별 금융기관 수신 지수<sup>1)</sup>



주: 1) 2023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



주: 1) 2023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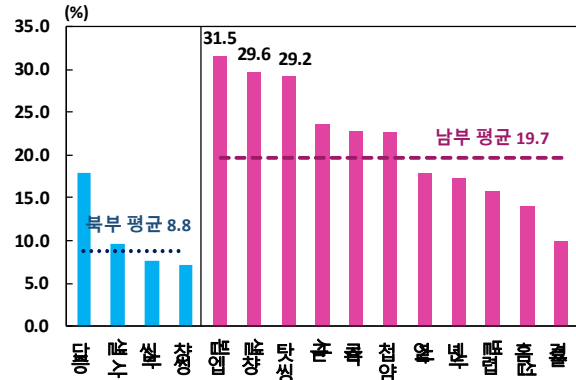
27) 2021년 충청남도 지역내총생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의 호조 및 이에 따른 투자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 27. 충청남도의 금융 취약계층(고령층, 외국인)의 여신<sup>28)</sup> 현황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고령층 여신 비중<sup>29)</sup>은 고령화율이 높은 남부권이 북부권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남부권에서는 부여, 서천, 태안 등이 고령층 여신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한편, 외국인 여신 비중<sup>30)</sup>은 북부권이 남부권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여신 규모 가운데 외국인 여신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 충청남도 고령층 여신 비중은 남부권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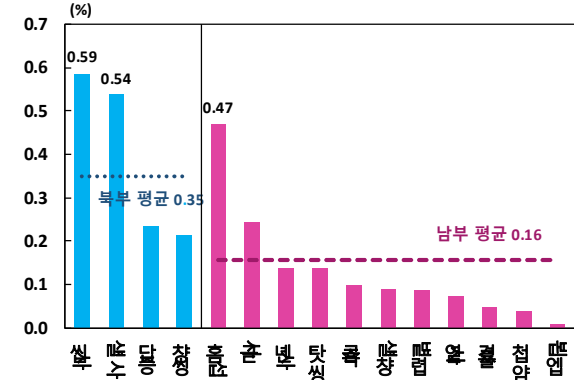
[그림 29] 충청남도 고령층<sup>1)</sup> 여신 비중<sup>2)</sup>



주: 1) 65세 이상 2) 2023년 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 DB)

### 외국인 여신 비중은 북부권이 높음

[그림 30] 충청남도 외국인 여신 비중<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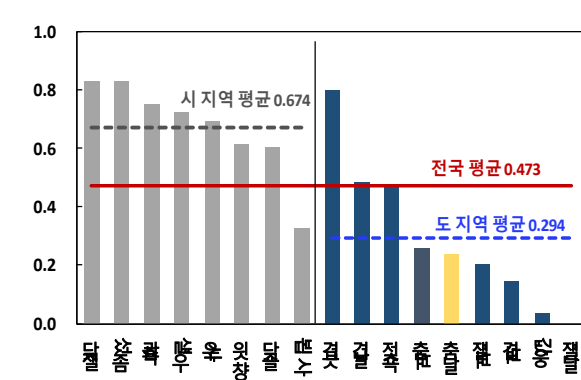
주: 1) 2023년 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 DB)

## (3) 신용활동인구 지수

28. 2023년 기준 충청남도의 신용활동인구 지수는 0.236으로 전국 평균(0.473) 및 도 지역(0.294) 평균을 하회하며 도 지역 중위권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2년까지 신용활동인구 지수가 도 지역 평균을 소폭 상회하였으나, 이후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폭이 커지면서 전국 및 도 지역 평균과의 격차가 확대되었다.

### 충청남도 신용활동인구 전국 하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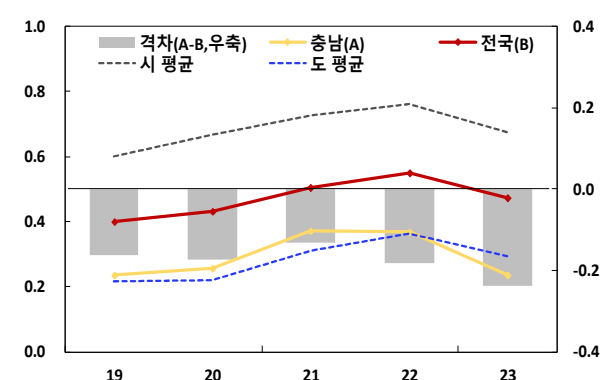
[그림 31] 광역 시·도별 신용활동인구 지수<sup>1)</sup>



주: 1) 2023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

### 연도별로는 최근 하락폭 확대

[그림 32] 연도별 신용활동인구 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28) 수신은 시·군별 세부 정보 입수가 불가하여 부득이 여신 정보만 사용하였다. 단, 여신 정보만 활용하여도 분석(금융 시스템 사용률 파악)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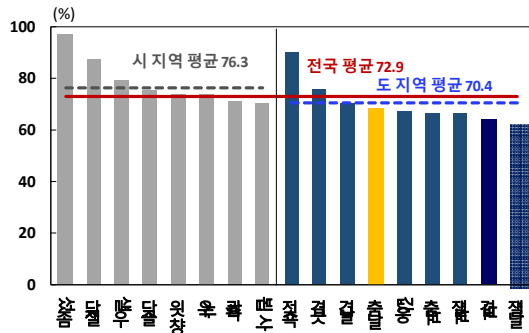
29) 권역별 고령층(65세 이상) 대출금액 합계 ÷ 시·군별 대출금액 합계(23말, 가계부채 DB)

30) 권역별 외국인 대출금액 합계 ÷ 시·군별 대출금액 합계(23말, 가계부채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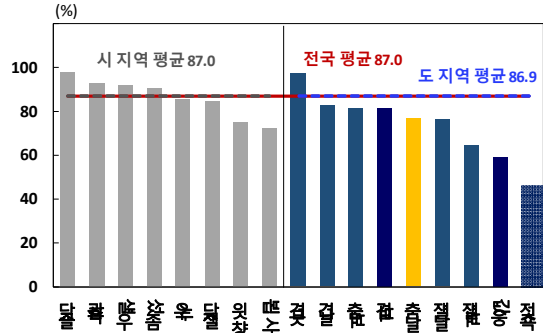
**29. 충청남도의 금융 취약계층(고령층, 외국인)의 신용활동인구 현황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충청남도 고령층 및 외국인 모두 신용활동인구 비중이 전국 평균과 도 지역 평균을 소폭 하회하면서 도 지역 중위권 수준을 나타내었다.

**충청남도 고령층과 외국인 신용활동인구 모두 전국 평균과 도 평균을 소폭 하회**

[그림 33] 광역 시·도별 고령층<sup>1)</sup> 신용활동인구 비중<sup>2)</sup> [그림 34] 광역 시·도별 외국인 신용활동인구 비중<sup>1)</sup>



주: 1) 65세 이상 2) 2023년 말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 DB)



주: 1) 2023년 말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 DB)

## IV

# 충청남도 금융포용 특징

### KEY TAKEAWAY

- ① 금융 인프라 부족,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인구구조 특징 등으로 금융포용 수준이 낮음
- ② 권역별 금융포용 수준은 북부권은 높은 데 반해, 남부권은 매우 낮음
- ③ 경제 규모 대비 금융 규모가 작고, 비은행 금융기관 의존도가 높음
- ④ 고령층, 다문화가정 대상 금융·경제 교육은 양적·질적으로 부족

## 1 낮은 금융포용 수준

### 【금융 인프라 부족,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인구구조 특징 등으로 금융포용 수준이 낮음】

30. 충청남도는 금융포용지수가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중하위권, 도 지역 중에서는 중위권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의 낮은 금융포용 수준은 금융 인프라 부족, 제조업과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 고령층 및 외국인 비중이 높은 인구구조 특징 등에 기인한다.
31. 충청남도는 남부권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은행 점포와 ATM 등의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지방은행 부재로 인해 여타 지역에 비해 금융 인프라가 열악하며, 이는 지역 내 금융서비스 이용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sup>31)</sup>”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 대출, 서민대출 등에서 최하위권 평가를 받는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또한, 충청남도의 산업구조는 주로 제조업(북부권)과 농업(남부권)으로 구성되어 있어 금융서비스 활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22년 매출액 기준 충청남도의 서비스업 비중은 32.6%로 매우 낮은 수준(전국 16위)이다. 이는 지역 내 금융서비스 활용에 제약 요인<sup>32)</sup>으로 작용할 수 있다<sup>33)</sup>. 또한, 제조업이 지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주요 제조업 대기업들의 본사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운영자금 조달, 자금 관리 등이 본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 내 금융서비스 수요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적 특성은 충청남도의 금융포용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1) 금융회사가 특정 지역에 자금을 얼마나 재투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이며, 평가항목은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금융인프라 투자 현황 등으로 구성된다.

32) 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인 금융서비스(대출, 신용관리, 자금 이체 등)의 필요성이 높다. 한편, 서비스업 비중이 낮은 지역은 금융기관의 잠재 고객(기업 및 개인)이 부족해 금융기관 진출 및 서비스 확장이 지연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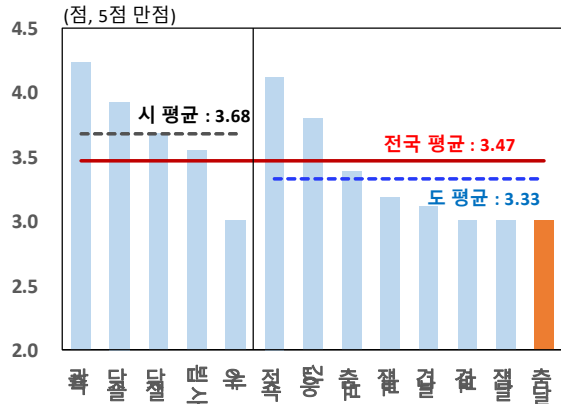
33) 충청남도의 금융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의 비중은 3.6%(전국 16위)로 전국 평균인 17.3%를 크게 하회한다.



**충청남도의 금융기관 지역재투자 평가는 최하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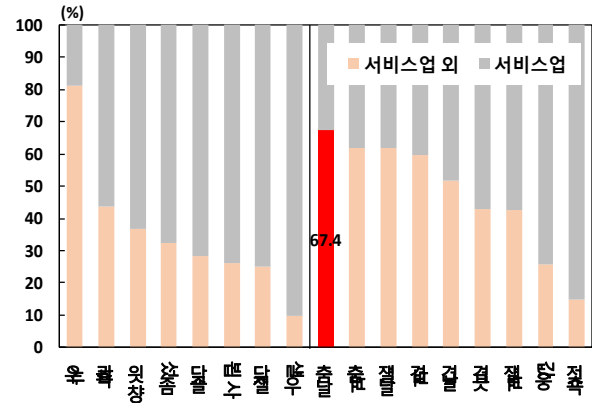
**산업구조 상 금융서비스 수요가 낮은 편**

[그림 35] 금융기관<sup>1)</sup> 지역재투자 평가<sup>2)</sup> 결과<sup>3)</sup>



주: 1) 시중은행(7개), 특수은행(3개) 지방은행(5개), 저축은행(12개) 등 총 27개 기관 기준  
 2) 수도권 제외 13개 시·도 대상 평가  
 3) 2024년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그림 36] 광역 시·도별 산업구조<sup>1)2)</sup>



주: 1) 2022년 매출액 기준  
 2) 서비스업 외 = 농·임·어업 + 제조업 + 건설업  
 자료: 통계청

**33. 한편, 충청남도는 고령층과 외국인 인구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고령층은 디지털 금융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 모바일 banking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 이용률이 낮으며, 외국인은 다국어 서비스와 맞춤형 금융상품이 부족해 금융서비스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금융 접근성의 취약점을 초래하며, 충청남도의 금융포용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도내 권역 간 금융포용의 큰 격차**

**[금융포용 수준은 북부권은 높은 데 반해, 남부권은 매우 낮음]**

**34. 충청남도의 금융포용 수준은 북부권은 높은 데 반해 남부권은 매우 낮은 편으로 권역별 편차가 크다.** 이는 도내 권역 간의 금융 인프라 격차,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 분포 차이 등에 기인한다.

**35. 북부권은 금융기관 점포, ATM 등 금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 또한, 젊은 층과 중년층은 스마트폰 banking과 같은 디지털 금융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 금융서비스 이용이 활발한 편이다. 반면, 남부권은 금융기관 점포, ATM 등 금융 인프라가 열악하고, 금융서비스 활용도가 낮다. 또한, 높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고령층(고령화율 30.0%, 2023년 말)의 경우 디지털 금융 접근성이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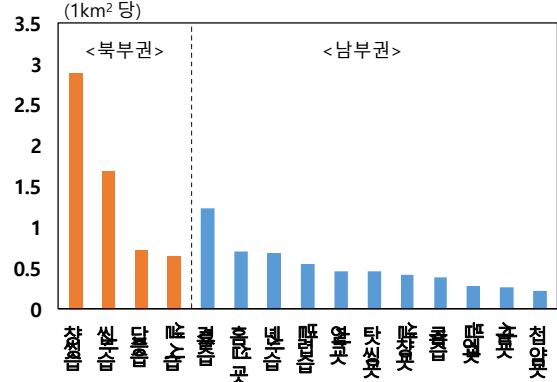
충청남도 권역별 금융 인프라 격차

[표 9] 충남 권역별 금융기관 점포 및 ATM 현황<sup>1)</sup>

	금융기관 점포	ATM
충청남도	1.3	6.3
북부권	2.0	12.3
남부권	1.0	3.5

주: 1) 2023년 말 기준  
 자료: 통계청, 금융결제원 금융MAP

[그림 37] 충남 시·군별 면적당<sup>1)</sup> 점포수 및 ATM수<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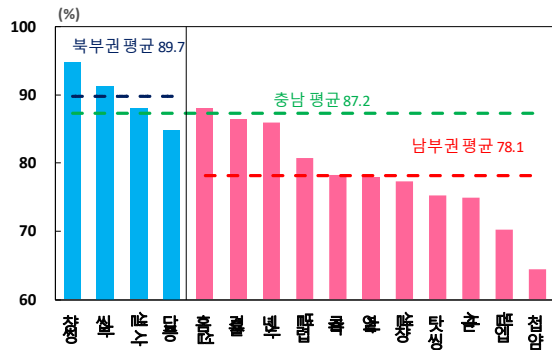


주: 1) 1km²당 2) 2023년 말 기준  
 자료: 금융결제원 금융MAP

**36. 충청남도 권역별 금융 인프라 격차는 신용활동인구 비중의 권역별 편차에도 반영되고 있다.** 북부권은 전반적으로 신용활동인구 비중이 높은 양상을 보이는 반면, 남부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까지 신용활동인구 비중이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2023년 들어 남부권을 중심으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경기둔화,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그리고 가계부채 관리 정책 강화 등의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남부권의 신용활동인구 비중은 2023년 하락폭이 북부권 대비 더 큰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남부권이 거시경제적 충격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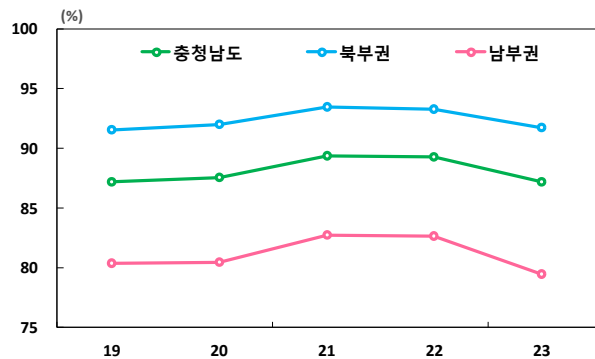
충청남도 북부권 신용활동인구가 남부권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권역별로 차별화

[그림 38] 충청남도 시·군별 신용활동인구 비중<sup>1)</sup>



주: 1) 2023년 말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 DB)

[그림 39] 연도별 충청남도 신용활동인구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 DB)

### 3 비은행 금융기관 위주의 작은 금융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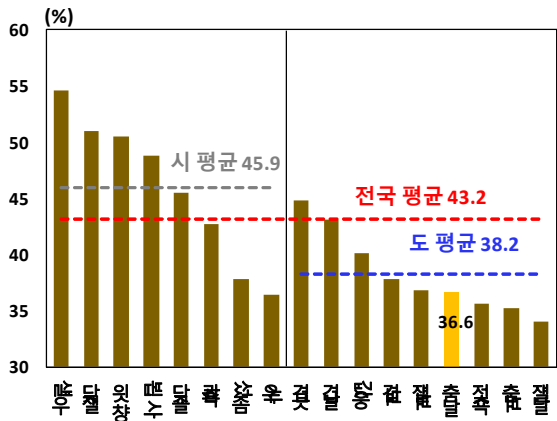
#### 【경제 규모 대비 금융 규모가 작고, 비은행 금융기관 의존도가 높음】

37. 충청남도는 광역 시·도 중 경제 규모(GRDP) 대비 금융 규모(여수신)가 매우 작고, 여타 광역 시·도 대비 여수신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금융 규모가 작으면 금융기관의 영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져 금융 접근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비은행 금융기관 비중이 높으면 가계는 자금운용 시 은행에 비해 높은 금리 혜택이 가능하지만 자금조달 시에는 대출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큰 규모의 장기투자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

38. 충청남도의 금융 규모가 작은 것은 ① 대기업 본사 부재, ② 근로자의 직주 불일치, ③ 지방은행 부재 등에 기인한다. 첫째, 지역 내에 대기업 공장이 다수 있으나 본사는 대체로 수도권에 소재하여 금융거래가 본사 소재지인 수도권에서 발생한다. 둘째, 수도권, 대전시, 세종시 등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통근하는 근로자 비율이 높아 이들 근로자의 지역 내 금융거래가 저조하다. 셋째, 충청은행이 피합병(1998.6월)된 이후 충청권 기반 지방은행 부재 등으로 은행 점포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sup>34)</sup>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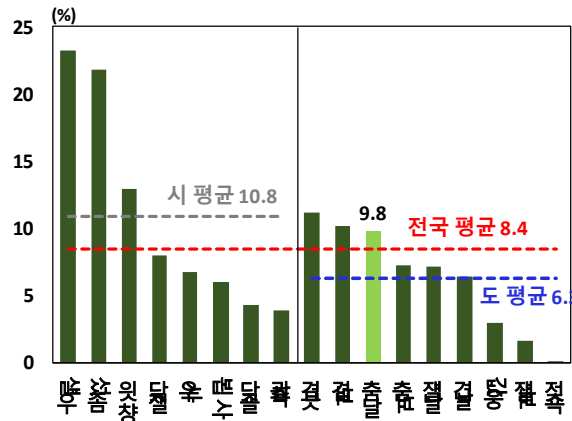
#### 충청남도 제조업체 본사는 대체로 수도권에 소재 인근 지역에서 통근하는 근로자 비중이 높음

[그림 40] 제조업체 중 본사 비중<sup>1)</sup>



주: 1) 2022년 기준, 단독사업체 제외 기준  
자료: 통계청

[그림 41] 타지역 통근 유입 비중<sup>1)</sup>



주: 1) 2020년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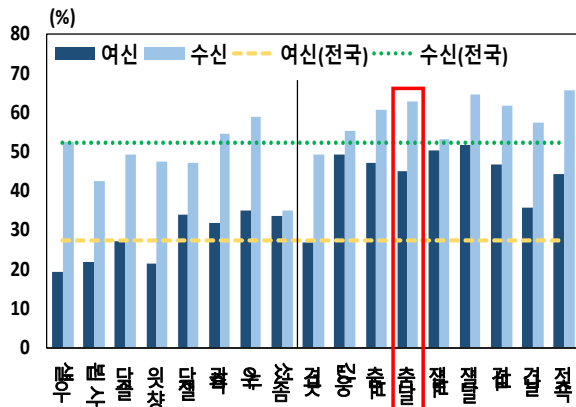
34) 은행 점포수가 적은 경우 고령층 등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며, 여수신 규모 확장 또한 제한될 수 있다.

**39. 한편, 충청남도는 비은행 금융기관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은행권 점포수가 위축되는 가운데 비은행 서민금융기관<sup>35)</sup>이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점포 운영을 유지하고, 고령층,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ATM을 운영하여 금융 접근성 제고에 일조하고 있다. 특히, 예금은행 접근성이 낮은 소멸 위험 지역일수록 서민금융기관의 점포 및 ATM 비중이 높고, 대출 이용에서도 서민금융기관의 비중이 두드러져 지역민들의 금융거래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지역 금융 접근성 확보에 있어 서민금융기관이 은행권 부재를 보완해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충청남도의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 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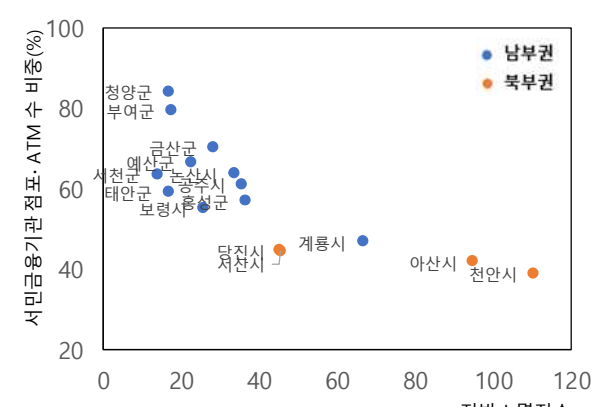
**소멸지역에서의 비은행 서민금융기관 역할**

[그림 42] 비은행 금융기관 여수신 비중<sup>12)</sup>



주: 1) 비은행 ÷ (은행 + 비은행)  
 2) 2023년 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그림 43] 서민금융기관 점포·ATM수 비중<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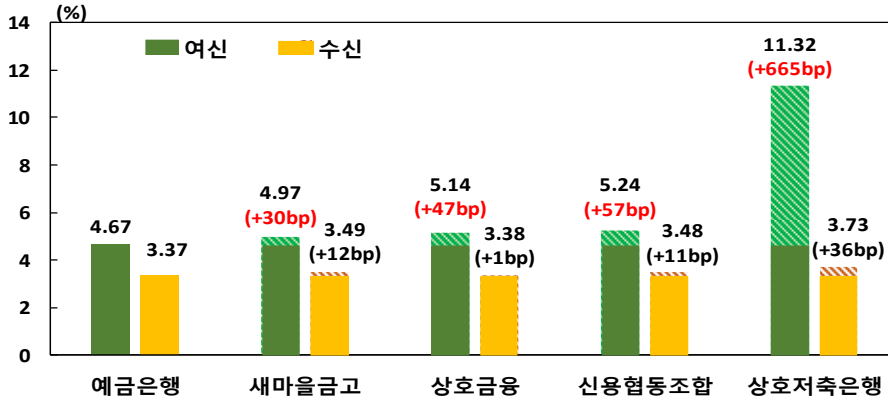
주: 1) 2023년 말 기준  
 2) 지방소멸지수(=20~39세 여성인구 ÷ 65세이상 인구)가 낮을수록 높은 소멸 위험  
 자료: 금융결제원 금융MAP, 통계청

**40. 그러나 비은행 금융기관 의존도가 높으면, 은행권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 금리로 인한 상환 부담, 장기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통상 비은행 금융기관은 은행보다 수신 금리가 높아 대출금리도 높게 적용되는데, 이는 비은행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가계와 자영업자에 채무상환 부담을 높이며, 특히 다중채무에 노출된 취약계층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자금조달과 운용에 있어 다양한 만기관리 수단 활용이 어려운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자금조달 및 운용 만기가 은행보다는 짧아<sup>36)</sup>, 성장기업의 설비 투자나 기술 개발과 같은 장기 자금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 이는 지역 소재 성장기업이 수도권 등에서 자금조달처를 찾아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5) 은행을 제외한 예금수취 금융기관으로서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산림업 단위협동조합, 우체국 등이 서민금융기관으로 분류된다.  
 36) 비은행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 유동성 관리, 차주 특성, 수익성 극대화 등의 이유로 단기 대출 중심으로 운영된다.

## 비은행 금융기관 여수신 금리는 은행보다 높은 편

[그림 44] 금융기관별 여수신 금리<sup>1)2)</sup>



주: 1) 일반대출 및 정기예금(1년) 금리(신규취급액, 2024.10월 기준)

2) 괄호 안은 예금은행 대비 금리 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 4 취약계층 대상 금융·경제 교육 부족

### 【고령층, 다문화가정 대상 금융·경제 교육은 양적·질적으로 부족】

41. 충청남도의 금융포용지수에 더해 금융·경제 교육 운영 현황을 추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충청남도의 금융포용 수준을 입체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금융·경제 교육은 올바른 금융 의사결정을 돕고, 고금리 대출 의존, 금융 사기, 디지털 금융 격차 등의 문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포용의 질적 향상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42. 2023년 충청남도의 금융·경제 교육 이수자는 인구 1만명당 60.8명 수준이고, 이중 취약계층인 고령층은 1만명당 1.2명, 다문화가정<sup>37)</sup>은 1만명당 0.2명으로 교육 이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고령층과 다문화가정이 전체 교육 이수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 0.3%로 이들이 충청남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각각 20.1%, 2.8%)을 고려하여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43. 권역별로는 남부권의 금융·경제 교육 이수자는 1만명당 75.9명으로 북부권의 1만명당 52.4명보다 23.6명(45.0%) 많은 편이다. 금융포용 수준이 낮은 남부권에서 교육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금융포용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고령층, 다문화가정 등 금융 취약계층 이수자가 전무하다는 한계가 있다.

37) 내국인(귀화) 및 외국인(결혼이민자)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자녀가 포함된 가정을 의미한다. 충청남도 금융·경제 교육 현황 자료는 교육 대상자를 외국인으로는 구분하고 있지 않아 대신 다문화 가정으로 분석하였다.

**44. 한편, 교육대상별로는 취약계층(고령층, 다문화)을 제외한 청소년(69.1%)과 성인(28.5%)이 대부분이다.** 청소년은 주로 초등학생이며, 성인은 청년, 일반인과 더불어 군인, 재소자 등으로 구성된다. 청소년 비중이 높은 것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수요<sup>38)</sup>가 많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충청남도 금융·경제 교육 이수자 가운데 고령층 및 다문화 비중이 매우 낮음**

**[표 10] 2023년도 충청남도 금융·경제교육 현황<sup>1)</sup>**

(명/만명, %)

	교육 인원		청소년 <sup>2)</sup>		성인 <sup>3)</sup>		고령층		다문화가정	
	명	(%)	명	(%)	명	(%)	명	(%)	명	(%)
충청남도	60.8	(100.0)	42.0	(69.1)	17.3	(28.5)	1.2	(2.1)	0.2	(0.3)
북부권	52.4	(100.0)	34.5	(65.9)	15.6	(29.8)	2.0	(3.7)	0.3	(0.6)
남부권	75.9	(100.0)	55.5	(73.1)	20.4	(26.9)	—	(—)	—	(—)

주: 1) ( )내는 교육 이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2) 다문화 제외      3) 고령층, 다문화 제외  
 자료: 충남경제교육센터

**45. 이처럼 충청남도의 금융·경제 교육은 주로 초·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기는 금융 이해력을 높이고 올바른 금융 습관을 형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로 여겨지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경제 문제 해결과 금융포용 확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된다.

**46. 다만, 충청남도의 고령층, 다문화가정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경제 교육은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고령층 대상 교육은 천안시에 위치한 일부 기관에서만 제공되며, 교육 내용은 실생활 전반을 다루기보다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에 치중되어 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아산시의 일부 기관이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교육 내용은 다문화가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제<sup>39)</sup>보다는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금융 이해력 향상과 포용적 금융 접근성을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38) 한국경제인연합회 조사(2024.8월)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6명(60.1%)은 본인의 경제 지식수준을 낮게 평가하였으며, 교사 대부분(97.1%)은 학교 경제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외부 경제교육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39) 한국 금융시스템 이해, 금융용어 및 금융상품 이해, 금융기관 이용 방법,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 소비 전략 등

V

**인구구조 특징을 고려한 정책적 시사점**

- 47. 충청남도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금융포용 수준이 중하위권이며, 도 내 권역별 격차도 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는 단순히 금융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경제적 안정성과 자립 능력,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장기적 회복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48.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충청남도의 인구구조 특징을 감안한 금융포용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금융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정부 지원 정책과의 연계,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그리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금융·경제 교육 강화와 같은 다각적인 접근법을 검토하였다.

1

**기존 금융 인프라를 활용한 금융 접근성 개선**

**[지역 금융기관 협력, 디지털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

- 49. 충청남도의 금융포용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인 남부권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기존 금융 인프라를 활용하여 금융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금융포용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 50. 첫째, 지역 금융기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은행, 농협, 신협, 우체국 등 지역 내 다양한 금융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서비스 중복 최소화 및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지역 내 금융기관들이 협력하여 필수 금융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에 공동 운영 점포 등을 도입할 수 있다.
- 51. 둘째, 기존 금융기관의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농촌 지역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농협, 신협 등 금융기관의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강화하여 물리적 거리로 인한 접근성 문제를 다소 완화할 수 있다. 이는 고령층은 물론, 모바일 금융서비스의 다국어 지원을 확대하여 외국인들의 금융 접근성도 강화할 수 있다.

52. 셋째, 생활 밀착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금융기관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는 편의점이나 소형 상점에 ATM 등을 설치하여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53. 아울러, 충청남도의 금고은행 선정<sup>40)</sup> 과정도 금융포용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금고은행 선정을 위한 평가과정에서, 평가 기준 중 하나인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항목과 관련하여 지역 금융기관의 네트워크 및 디지털 서비스 강화, 생활 밀착형 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 2

### 정부 정책과 연계한 금융 접근성 개선

####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금융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

54. 충청남도 남부권에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정부의 다양한 정책<sup>41)</sup>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5. 첫째, 농촌 재생 및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sup>42)</sup>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 재생 사업 및 생활 SOC 구축 사업과 금융서비스를 연계하여, 농촌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 SOC 시설(예: 농촌복합문화센터, 마을회관 등)에 디지털 금융 키오스크, ATM, 모바일 뱅킹 상담 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주민센터나 복지시설에서 공공 서비스와 금융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금융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
56. 둘째, 농촌 중심지 및 거점지역 사업과 협력하는 방안이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에서 조성된 지역 거점을 활용해 금융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거점지역에 은행, 농협, 신협, 우체국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협력하는 공동 금융서비스 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또한 거점지역 이외의 배후 마을 주민(특히,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식 금융 차량을 배치하여 정기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40) 현행 평가기준: ① 대내외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② 도에 대한 대출·예금 금리, ③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④ 금고 관리 능력, ⑤ 지역사회 기여도

41)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 4> ‘정부의 농촌지역 지원 사업 현황’ 을 참조하기 바란다.

42)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생활 기반 시설 확충 사업을 의미하며,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문화, 복지, 체육, 공공서비스 시설에 초점을 둔



57. 셋째, 정부-금융기관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통합적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농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대출 지원, 저금리 금융상품, 운영비 지원 등을 협력하고, 농촌 주민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정부가 보증을 확대해 대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 3 금융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정책 수행

#### 【금융 취약계층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금융상품과 금융·경제 교육을 제공할 필요】

58.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포용을 제고하기 위해 고령층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금융·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는 높은 고령화율과 외국인 비중이라는 인구구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고령층, 외국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금융·경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내 금융포용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

59. 농촌 지역 고령층의 경우, 생활비, 의료비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금리 소액 대출상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대체로 소득 수준과 경제적 자립도가 낮고 건강 문제와 노후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등 연금형 금융상품 등을 적극 개발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도울 수 있다.

60. 한편, 외국인의 경우, 이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택자금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등 외국인 특화 금융상품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꾸준히 증가<sup>43)</sup>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가족을 동반한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서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대출 문턱은 높은 편<sup>44)</sup>이다. 향후 외국인들의 주택마련 목적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을 위한 금융상품을 적극 출시할 필요가 있다.

43) 최근 정부는 생활인구 정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등 현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 국내 산업 내 인력 수급 등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유치로 해소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4) 외국인 근로자들에 따르면 최근 은행 대출금리는 약 9%로 내국인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충청남도 외국인 전문가 면담 결과).

**61. 고령층 대상 금융·경제 교육 프로그램 구성 시 고령층의 특성<sup>45)</sup>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실생활과 연계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교육주제로는 기존 금융 사기 예방에 더해 기초 금융 이해, 연금 및 노후 준비, 디지털 금융 적용, 생활 속 경제교육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 방식은 실습 및 질의응답이 자유로운 소규모 워크숍, 은행 방문 실습 등 현장 체험, 사후 반복 학습을 위한 온라인 교육 제공 등이 적합하다.

**고령층 특성을 고려한 금융·경제교육 필요**

**[표 11] 고령층 대상 금융·경제 교육 프로그램(안)**

주제	세부내용	실행방식
기초 금융 이해	기본 금융 용어, 주요 금융 상품 이해, 금융거래 방법 등	강의 및 시청각 자료 활용, 은행 거래 시뮬레이션
디지털 금융 활용	스마트폰 뱅킹, 디지털 결제, 온라인 금융 보안 등의 실습 중심 교육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포함한 단계별 학습 제공
생활 속 경제교육	생활비 절감 방법, 의료비 및 보험 관리, 공동체 금융 활용	생활 밀착형 실습 교육, 지역 사회 자원 활용 소개
금융 사기 예방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등 금융 사기의 사례와 예방 방법 소개	사례 중심 교육, 금융 사기 대처법 교육
노후 재정 관리	연금 관리, 자산 배분, 의료비 준비 등 노후 생활을 위한 재정계획 지원	맞춤형 상담을 통해 개인 상황에 적합한 전략 제시

**62. 외국인(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금융·경제 교육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특히, 교육 대상자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한국 금융시스템과 관련한 실질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주제로는 한국의 기초 금융이해, 금융 사기 예방, 송금 등 국제금융, 자녀 경제교육 등 외국인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 방식도 고령층과 마찬가지로 실습, 반복 학습 등 위주로 진행하되, 교육 자료를 다국어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개인별 금융상황을 분석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45) 금융 이해력 부족, 디지털 격차, 신체기능 저하 등

**외국인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경제교육 필요**

**[표 12] 외국인 대상 금융·경제 교육 프로그램(안)**

주제	세부내용	실행방식
기초 금융 이해	저축, 대출, 금리, 세금 등 금융 개념 설명 및 금융상품 안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와 쉬운 가이드 제공
디지털 금융 이해	디지털 뱅킹 앱 사용법, 온라인 결제 시스템, 사이버 보안 실습 교육	실습 중심의 워크숍 및 튜토리얼 포함
권리 및 보호 인식 제고	소비자 권리, 금융 사기 예방 및 법적 보호 수단에 대한 정보 제공	민원 제기 및 지원 체계 접근 방법 안내
금융 사기 예방	금융 사기 유형 및 예방 방법, 금융 안전 수칙	사례 중심 교육, 금융 사기 대처법 교육
맞춤형 금융 계획	송금, 교육비 저축, 은퇴 준비 등 특정 요구사항을 해결	개인 목표 및 과제에 맞춘 맞춤형 상담 제공

## 참고 1 외국인 체류자격

- 우리나라에서 부여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머무르는 목적과 활동에 따라 분류
  - 각 체류자격은 특정 목적에 맞게 설계되었으며, 주로 외국인의 신분과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이며, 주요 체류자격 유형과 해당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주요 외국인 체류자격

유형	대상
C-3 (단기방문)	관광, 회의, 친척 방문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D-2 (유학)	대학교나 대학원 과정에 입학하거나 학위를 취득하려는 외국인
D-4 (일반연수)	어학연수, 직업교육 등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외국인
E-1~7 (전문직)	교수, 외국어 강사, 연구원, 예술·공연가 등 전문적 활동을 하는 외국인
E-8 (계절근로)	농업 및 어업과 같은 계절적 특성이 강한 산업에서 단기적 일하는 외국인
E-9 (비전문취업)	특정 산업 분야(제조업, 건설업, 어업 등)에서 취업하는 외국인
F-1 (방문동거)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방문하거나 동거하는 가족
F-2 (거주)	거주 목적 장기체류 외국인
F-3 (동반)	특정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동반가족(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F-4 (재외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
F-5 (영주)	대한민국에서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
F-6 (결혼이민)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H-1 (관광취업)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관광과 취업 병행 가능
H-2 (방문취업)	특정 국가(주로 재외동포)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단순 노동 목적으로 입국

## 참고 2 금융포용지수 현황

- 금융포용지수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금융포용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한 지수를 발표
  - 이는 저소득 국가 및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의 정책 수립과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표로 활용

### 금융포용지수 현황

지수명	기관	주요 평가 항목	특징
Sarma Index of Financial Inclusion	Mandira Sarma (2008)	- 금융서비스 접근성 - 저축 및 대출 계좌 보유 비율 - 금융서비스의 균등한 분배	금융포용을 단일 지표(0~1)로 수치화, 국가 간 비교 용이
Financial Access Survey (FAS)	IMF (2009)	- 은행 지점 및 ATM 수 - 전자결제 시스템 사용률 - 저축 및 대출 계좌 수 - 보험 및 금융 상품 보급률	금융 인프라 및 서비스 사용률을 중심으로 접근성 평가
Financial Access Index (FAI)	세계은행, IFC (2010)	- 금융기관의 지리적 접근성 (지점 및 ATM 분포) - 서비스 제공 수준 (신용 및 저축 상품) - 금융서비스 사용 빈도	금융 인프라 확충 및 평등한 서비스 제공 평가
Global Findex Database	세계은행 (2011)	- 계좌 보유율 - 저축 및 대출 활동 - 디지털 결제 서비스 이용 - 비상시에 재무적 대처 능력	금융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한 국제 비교가 가능
G20 Financial Inclusion Indicators	G20 (2013)	- 금융서비스 접근성 (지점 수, 모바일 서비스 제공) - 금융서비스 사용성 (계좌 보유율, 디지털 결제 비율) - 금융 교육 및 소비자 보호 수준	개발도상국 및 저소득층 대상 금융포용 개선에 초점

### 참고 3 Sarma의 금융포용지수 산출 방법

□ 본 보고서에서는 Sarma(2012)의 정의에 따라 다차원적인 접근법으로 지역별 금융포용지수를 산출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됨

○  $t$ 연도에 지표를 구성하는 변수  $j$ 에서 지역  $i$ 가 차지하는 상대적인 위치를 다음과 같이  $d_{ijt}$ 라고 정의

$$d_{ijt} = w_j \times \frac{A_{ijt} - m_j}{M_j - m_j}$$

\*  $w_j$ 는 지표 산출시 사용된 변수  $j$ 의 상대적 중요도를,  $A_{ijt}$ 는  $t$ 연도에 실제 관측된 지자체  $i$ 의 변수  $j$ 값을,  $M_j$ 와  $m_j$ 는 기간중 관측된 변수  $j$ 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의미

○ 변수  $j$ 가  $n$ 개일 때 지자체  $i$ 의 상대적 위치는  $n$ 차원상의  $D_{it} = (d_{i1t}, d_{i2t}, \dots, d_{int})$ 로 표현되며,  $d_{ijt}$ 는 정의상 0과  $w_j$ 사이의 값을 가짐

—  $O = (0, 0, \dots, 0)$ 와  $W = (w_1, w_2, \dots, w_n)$ 는 각각 금융포용성이 가장 낮고 높은 상태

— 본 보고서에서  $j = 1, 2, 3$ 이며, 각각 ① 금융기관 접근성(금융기관 점포수 및 디지털뱅킹 이용률), ② 금융기관 여수신 규모(GRDP 대비 여수신 총액 비율), ③ 신용활동인구 비중을 의미

○ 금융포용지수( $IFI$ )는  $D_{it}$ 가 최악의 상태( $O$ )로부터 먼 정도(Euclidean distance)와 최상의 상태( $W$ )로부터 가까운 정도(inverse Euclidean distance)를 단순 평균하여  $O$ 와 멀거나  $W$ 와 가까울수록 큰 값을 갖도록 표준화

$$IFI_{it} = \frac{1}{2} \left[ \frac{\sqrt{d_{1t}^2 + d_{2t}^2 + \dots + d_{nt}^2}}{\sqrt{w_1^2 + w_2^2 + \dots + w_n^2}} + \left\{ 1 - \frac{\sqrt{(w_1 - d_{1t})^2 + (w_2 - d_{2t})^2 + \dots + (w_n - d_{nt})^2}}{\sqrt{w_1^2 + w_2^2 + \dots + w_n^2}} \right\} \right]$$

—  $IFI$ 는 정의상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장 가까운 지자체가 가장 금융포용적인 것을 의미

#### 참고 4 정부의 농촌지역 지원 사업 현황

-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농촌 재생, 지역 경제 활성화, 생활 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정부의 농촌지역 지원 사업 현황

정부 부처	지원 사업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읍·면 중심지에 교육, 문화, 복지 기능을 확충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소규모 마을의 기초 생활서비스 제공과 정주 여건 개선
	농촌 공간정비 사업	유해 시설 이전·정비, 문화·휴게공간 조성을 통해 농촌 환경 개선
	농촌 협약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주거, 경제, 서비스 분야 통합 지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낙후된 농촌 지역의 주거지 정비와 생활 SOC 확충을 통한 환경 개선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	주민 주도의 문제 해결과 공동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 육성 사업	농촌 지역 특화 산업 발굴·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시설 현대화, 기술 개발, 판로 개척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농촌 관광 활성화 사업	농촌의 문화·자연 자원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도시-농촌 교류 활성화
환경부	생태마을 조성 사업	농촌 지역의 생태계를 보존하며 친환경 관광과 주민 소득 창출 지원

## <참고문헌>

- 강유진(2019), “대전·세종·충남지역 인구 유출입 현황 및 특징”,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 김봉균·여효성(2021), “지역금융기관의 금융포용지수에 대한 연구: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지역 간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 박창균·허석균(2016), “서민금융시장의 현황과 과제: 금융포용의 관점에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 윤상용(2022), “서민금융기관의 지점수 감소가 지역의 금융포용과 기관의 경영효율에 미치는 영향”, 지역개발연구
- 윤정미(2017), “충남 농어촌지역의 인구구조 실태와 정책 과제”, 충남리포트 vol.273, 충남연구원
- 윤향희(2023), “충남지역 외국인 노동인력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 이순호·노형식(2014), “금융포용의 개념과 전략과제”, 한국금융연구원
- 이지영·홍준의(2022), “글로벌 금융포용 노력과 우리나라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한국은행
- 정지수(2024), “디지털 금융소외 현상에 대한 글로벌 움직임과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 정희완 외(2023), “강원지역 금융포용의 특징 및 평가”, 한국은행 강원·강릉본부
- 최광신(2019), “Kiindex: 빅데이터 기반 지역별 금융포용지수”, 금융감독원
- 최성욱·신용재(2015), “IT 산업이 금융서비스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Cyn-Young Park, Rogelio Mercado, Jr.(2021), “Understanding Financial Inclusion: What Matters and How It Matters”, Asian Development Bank(ADB)



Mandira Sarma(2016), "Measuring Financial Inclusion using Multidimensional Data", World Economics

Noelia Camara, David Tuesta(2017), "Measuring Financial Inclusion; a multidimensional index", BIS

Ratna Sahay(2015), "Financial Inclusion: Can it meet multiple macroeconomic goals?", IMF

World Bank(2008), "Finance for all? Policies and pitfalls in expanding access", World Bank Policy Research Report